



#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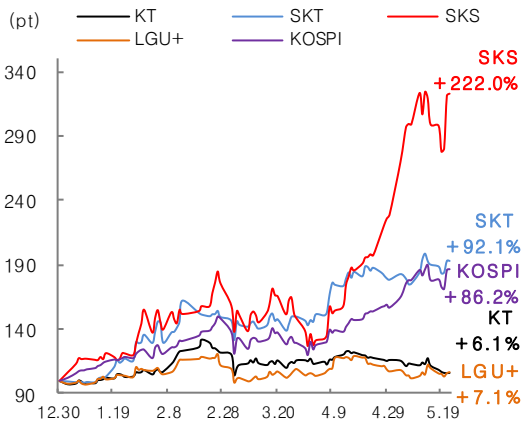
기업	25/12/30	05/15	05/22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101,300	102,800	▲49,300	▲92.1%	▲1,500	▲1.5%	3,320	3.2	
SK스퀘어 (402340)	368,000	1,098,000	1,185,000	▲817,000	▲222.0%	▲87,000	▲7.9%			
KT (030200)	52,600	58,700	55,800	▲3,200	▲6.1%	▼2,900	▼4.9%	2,500	4.5	
LGU+ (032640)	14,720	16,210	15,760	▲1,040	▲7.1%	▼450	▼2.8%	700	4.4	
KOSPI	4,214.2	7,493.2	7,847.7	▲3,633.5	▲86.2%	▲354.5	▲4.7%			

###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형성할수록, 통신의 주주환원 매력에 투자포인트로 부각될 것
- 통신 주간 -1.4%, KOSPI +4.7%. YTD 통신 +37.5%, 지수 +86.2%. 지수가 급반등 하면서 한 주 만에 다시 통신주 언더퍼폼. 지수가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올라가면서 통신이 소외 받고 있으나,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통신의 실적 개선 및 높은 주주환원 매력이 투자포인트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가장 매력적인 KT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
- 4Q19 이후 배당 재투자 수익률 SKT +273%, KT +196%, LGU+ +54% vs. KOSPI +252%. 장기 배당 재투자 기준 통신이 아웃퍼폼
- Space X 상장 이후 대어는 Anthropic이기 때문에, SKT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중
- LGU+는 LG 그룹의 로봇 사업 내에서의 역할이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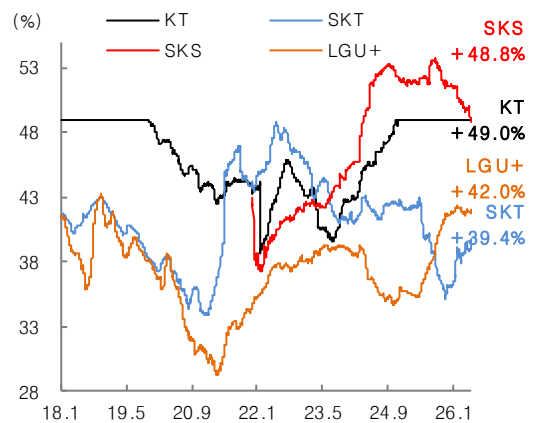
## 2. 주가 차트

###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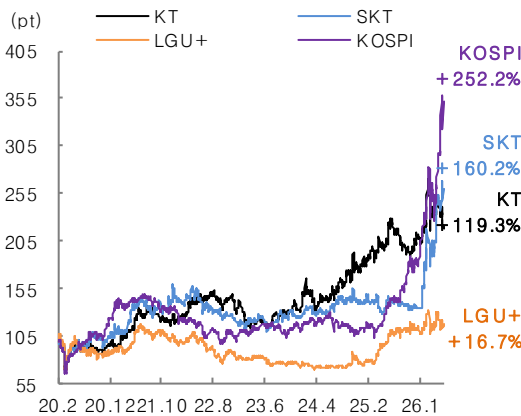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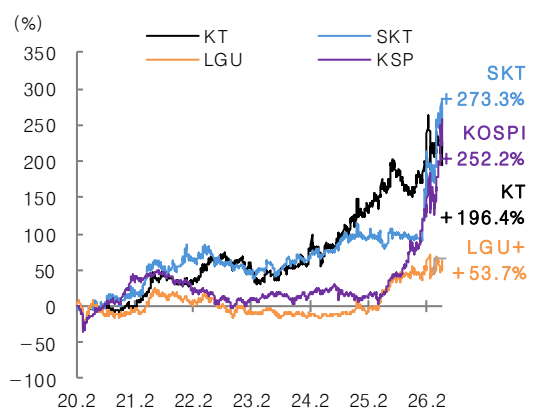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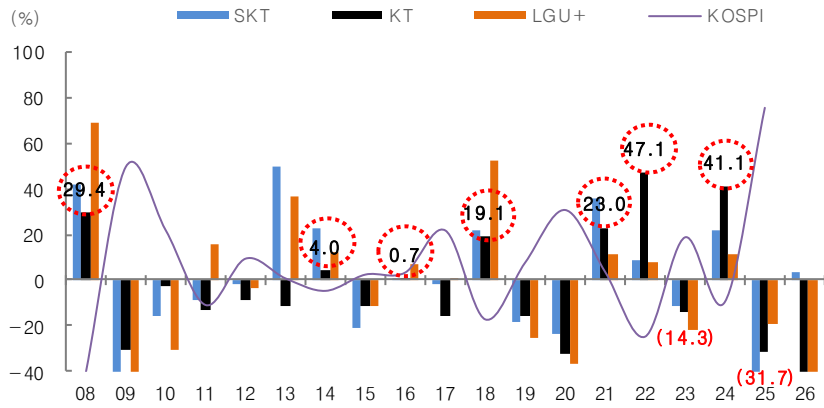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92.1%(+3.2%), KT +6.1%(-43.0%), LGU+ +7.1%(-42.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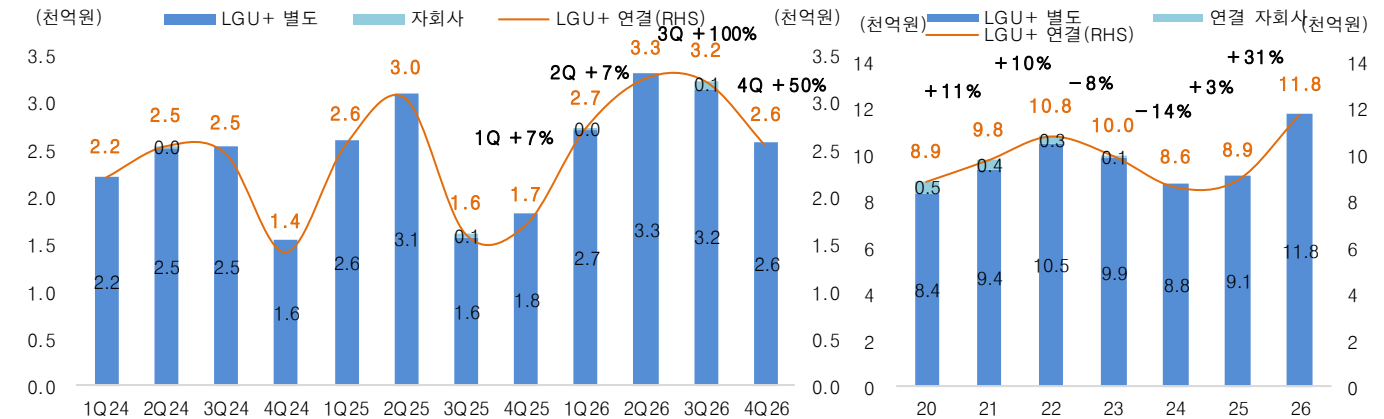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92.1	6.1	7.1	86.2	3.2	(43.0)	(42.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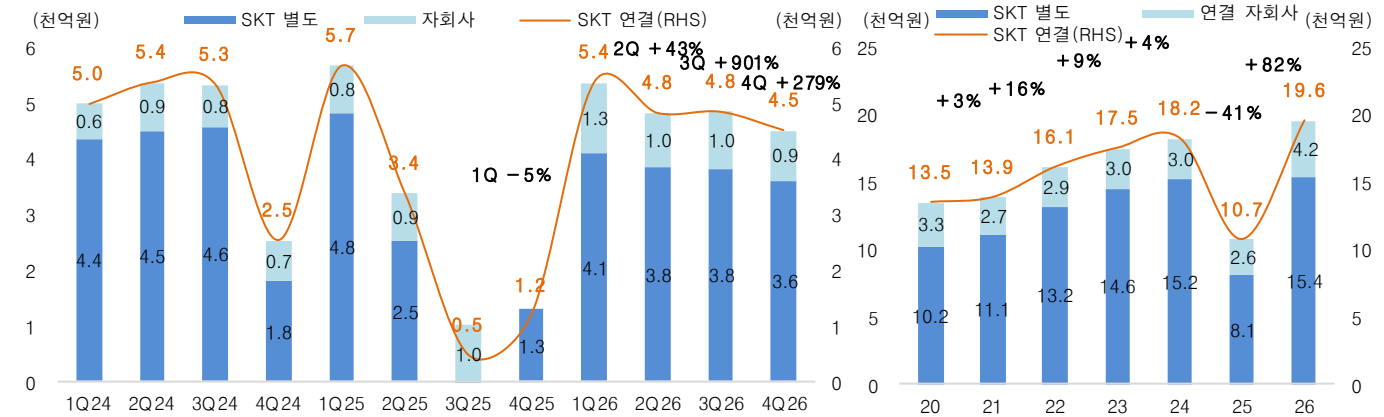
### 3. 1Q26 Review

LGU+ OP 1Q26 2.7천억원(+7% yoy), 26E 1.2조원(+31%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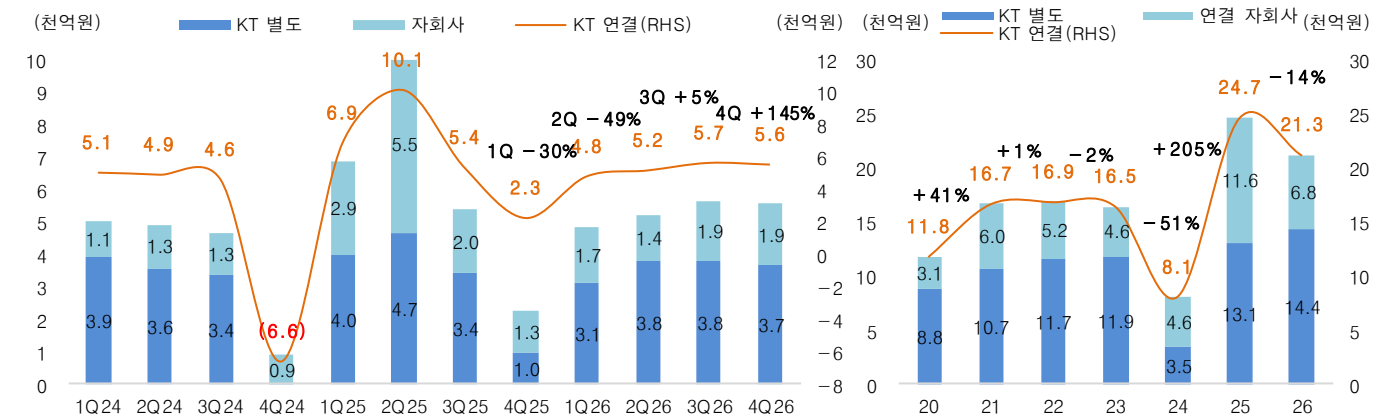
자료: LGU+,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T OP 1Q26 5.4천억원(-5% yoy), 26E 2조원(+82%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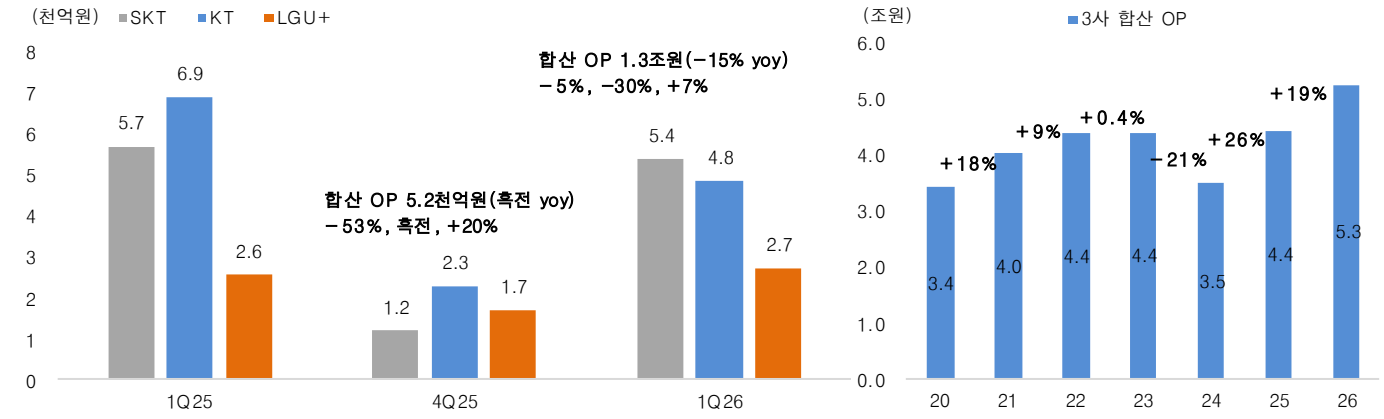
자료: S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T OP 1Q26 4.8천억원(-30% yoy), 26E 2.1조원(-14%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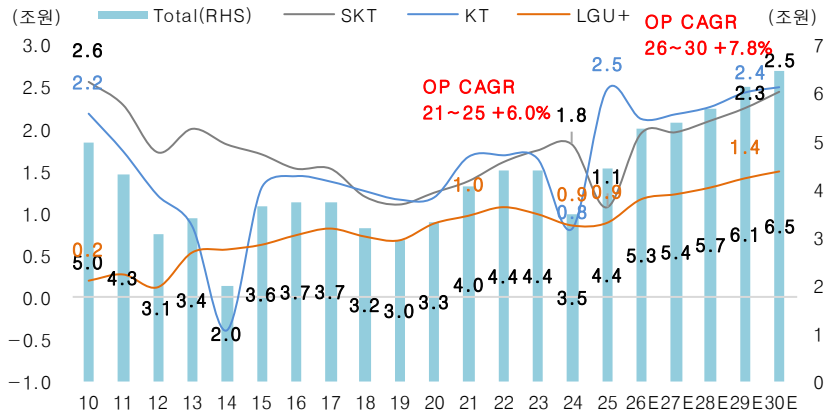
자료: KT,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1Q26 1.3조원 (-15% yoy), 26E 5.3조원 (+19% yoy)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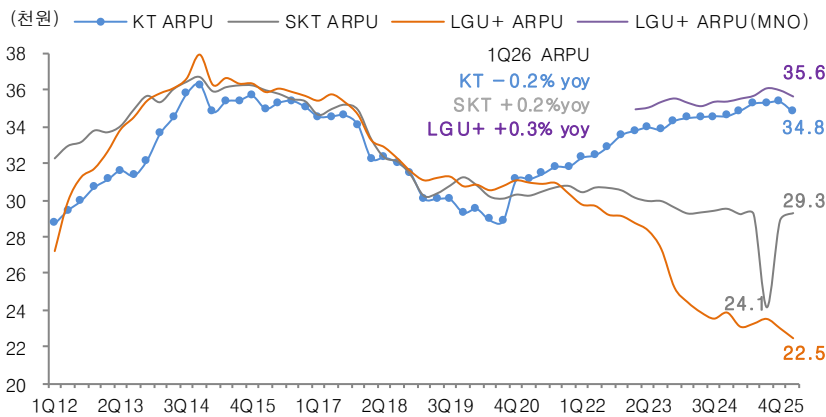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사 합산 OP 26E 5.3조원, 30E 6.5조원. 연평균 8% 증가 전망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Q26 무선 ARPU. LGU+ +0.3%, SKT +0.2%, KT -0.2%



자료: 각사 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단말기 종합시책, 유선통신 판매점 규제, KT 개인정보 자문위원회, 통합요금제 전면 전환, KT 피지컬AI 실증

**산업**  
**단말기 종합시책**

1. 방미통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자율화된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백 사이 균형점을 설정할 6월 종합시책 마련에 착수. 규제 중심 체계에서 공동규제·자율규제 중심 운영 구조로 전환
2. 단통법 폐지 후 시행령·고시 정비를 넘어 실제 유통시장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장치 마련. 지원금 차별 금지, 계약 정보 고지, 시장 모니터링, 이용자 피해 예방을 묶는 운영 가이드라인 성격 강화
3. 이번 시책은 과징금 중심 직접 규제보다 시장 방향 제시와 자율 통제 유도에 무게. 이동통신사·제조사·단체 참여 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기준을 설계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공동규제 모델
4. 가장 민감한 측은 지원금 자율화 유지 범위와 차별 금지 기준 구체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살리려면 가격 경쟁을 허용해야 하지만, 정보 비대칭이 심한 고령층·취약계층 보호 장치 없이는 불완전 경쟁 심화 가능성
5. 계약서 명시 강화 통해 단말기 가격, 할부, 지원금, 부가서비스, 결합상품까지 포함하는 정보 투명성 확대. 판매 현장의 불완전 설명, 숨은 비용, 조건 오인 문제를 줄이려는 소비자 보호 인프라 성격

**중립적**

- 단통법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지원금 관련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후 정보 제공은 투명해 졌지만, 시장 분위기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지원금 규모가 축소된 것이 단통법 폐지의 근거. 단통법이 폐지되고 후속 종합시책이 마련된다는 것이 지원금 상승 및 통신사의 마케팅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산업**  
**유선통신 판매점 규제**

1. 정부가 인터넷·유선전화 판매점까지 사전승낙제를 확대 적용하며 통신 유통시장 전반을 등록·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 추진. 단말기 중심 관리에서 유·무선 통합 유통 통제 구조로 정책 범위 확대
2. 판매점 적격성 심사와 법령 준수 관리 의무 강화.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오남용, 과도한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 차별 문제를 사전 관리 방식으로 통제
3. 무선 분야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유선 분야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상태 지속. 정부는 낮은 참여율과 유통 현황 파악 부재를 문제로 보고 의무 등록 기반 실태 관리 체계 구축 시도
4. 판매점 업체는 경쟁 위축과 정부 개입 확대 가능성에 강한 경계감 표출. 개인정보 규제 강화와 업계 자정 노력에도 추가 등록 규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 판매점 부담과 시장 진입 장벽 상승 우려 확대
5. 향후 법 개정과 시범 운영 과정에서 자율 경쟁과 이용자 보호 간 충돌 가능성 증대. 사전승낙제가 유통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지, 과잉 규제로 시장 역동성을 약화시킬지 가제도 안착 핵심 변수

**중립적**

-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25년 대규모 해킹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보호 강화라는 부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

**KT**  
**KT 개인정보 자문위원회**

1. KT가 AI·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흐름 속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며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 추진. 데이터 활용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신뢰 확보를 핵심 경영 과제로 격상
2. 위원회는 정책·법률·보안·윤리·산업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개인정보 처리 책임성과 데이터 활용 적정성 검증 역할 수행. 기술 중심 보호 체계에 외부 감시와 사회적 신뢰 장치를 결합하는 구조
3. 핵심 배경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개인정보 처리 범위와 활용 복잡성 급증 흐름. 데이터 활용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 균형 문제가 기업 경쟁력과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좌우
4. KT는 유출 사고 예방, 재발 방지 체계, 안전성 보호조치 고도화를 주요 자문 범위로 설정. 단순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글로벌 수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ESG형 신뢰 전략 강화 목적
5. 내부 통제만으로는 AI 시대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개인정보보호를 기술 부서 문제가 아닌 경영·윤리·사회적 책임 영역으로 확장하는 흐름

**중립적**

-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와 제도 준비가 뒷받침 되면서 통신사의 신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산업**  
**통합요금제 전면 전환**

1. 이동통신 3사가 5G·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며 세대별 기술 중심 요금 구조 종료 국면. 데이터 용량·속도 중심 선택 체계로 이동하며 통신 요금제 체계 단순화
2.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KT까지 통합요금제 출시가 이어질 예정이며 기존 5G·LTE 요금제 다수가 신규가입 중단 수순. 기술 세대 구분보다 사용 패턴 중심 상품 구조로 시장 재편 흐름 가속
3. 핵심 변화는 2만원대 저가요금제에도 400Kbps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적용. 정부와 이동3사가 통신 기본권 강화 명분 아래 저가 이용자 데이터 지속 사용권을 제도화하는 방향 전환
4. 노인·청소년 특화 혜택 강화 역시 주요 축으로 부상. 고령층 음성·문자 기본 제공 확대 등은 통신 서비스를 단순 상품이 아닌 생활 필수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정책 흐름과 연결
5. 실제 요금 수준과 혜택 체감 차이가 관련. 구조 단순화만으로 끝날 경우 효과 제한 가능성, 반대로 QoS·고령층 혜택·데이터 제공 확대가 실질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경우 통신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

**중립적**

- 일정부분 통신사들의 매출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선호하는 방식의 요금제라면 적극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KT**  
**KT 피지컬AI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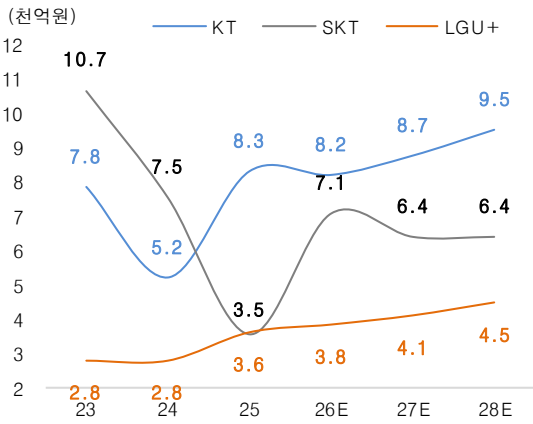
1. KT가 AX미래기술원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실증 체계를 구축하며 로봇·설비 연계형 AI 기술 확보 본격화. 생성형 AI 이후 실제 공간과 장비를 제어하는 물리 환경 기반 AI 경쟁 구도 확대
2. 프론티어AI 랩 산하 조직 중심으로 로봇 학습데이터·VLA 모델·로봇 에이전트 개발 인프라 구축 완료 단계.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증강, 실제 환경 검증을 결합한 통합 실험 체계 구축 방향성 부각
3. 피지컬 AI는 디지털 업무 자동화를 넘어 제조·물류·건물관리 등 산업 현장 판단과 제어 수행 기술. AI가 센서·로봇·설비와 연결돼 행동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산업 AI 전환 흐름 핵심 영역
4. KT는 올해 조직개편에서 피지컬AX담당 조직을 신설하며 중장기 성장축으로 로봇 기반 AI 재정비 착수. 과거 서빙로봇 직접 운용 부담 축소 이후 플랫폼·AI 중심 전략으로 방향 전환 움직임 확인
5. 핵심 기반으로는 클라우드형 로봇 운영 플랫폼 K-RaaS 활용 계획. 이기종 로봇과 설비를 통합 관리하며 산업 현장 단위 운영 자동화와 피지컬 AI 상용화 가능성 검증 목적 구조

**중립적**

- AI 산업은 생성형 AI 단계를 넘어서 Agentic AI와 Physical AI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단계로 진입. 통신사들도 선제적으로 BM에 대한 준비 필요. 다만, Agentic AI와 Physical AI가 만능일 필요는 없음. Vertical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트래픽 유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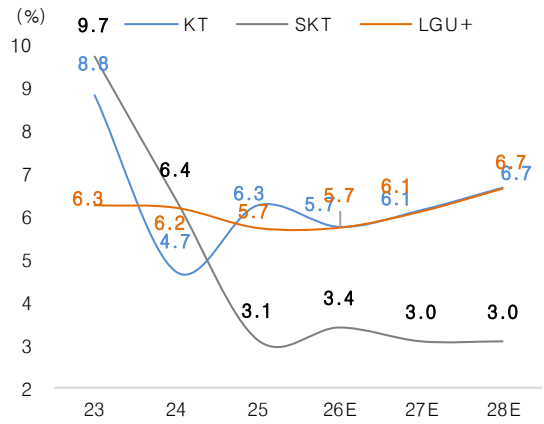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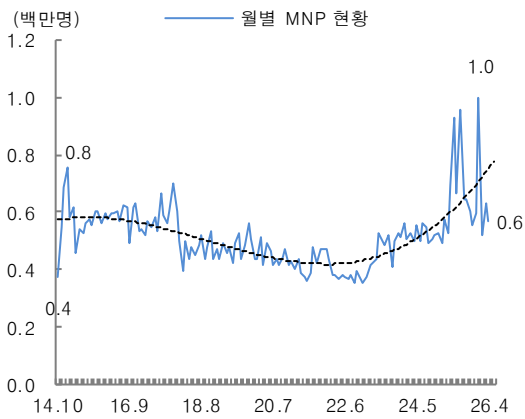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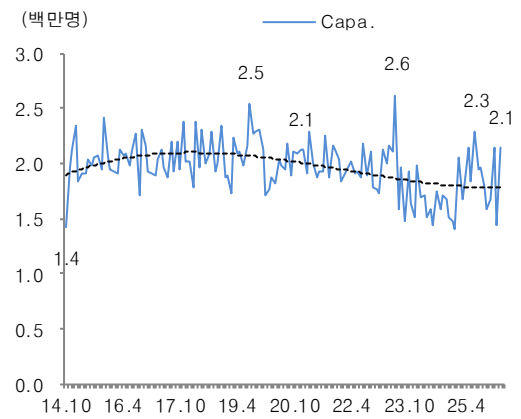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4월) 567천명, -66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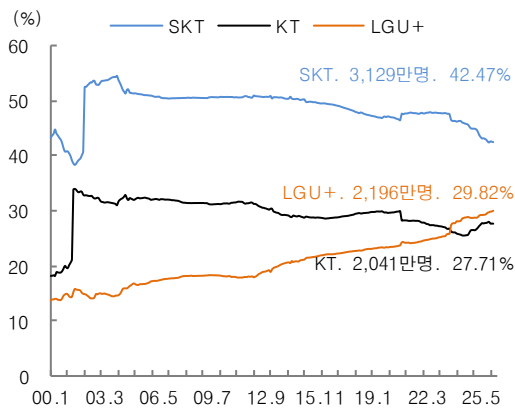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변이 + 기변) 214만명(26.3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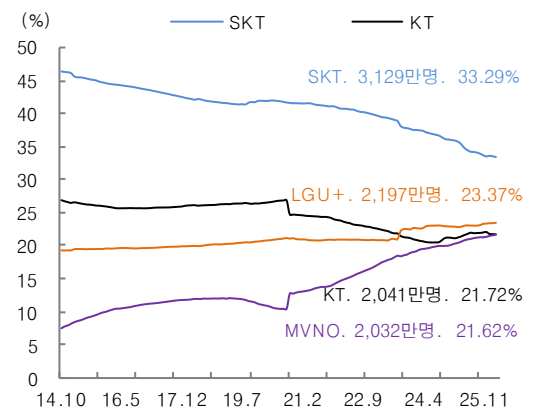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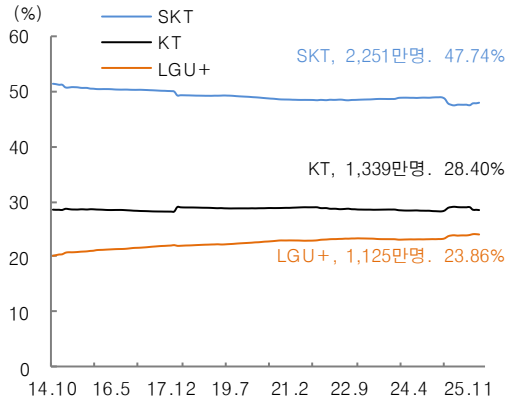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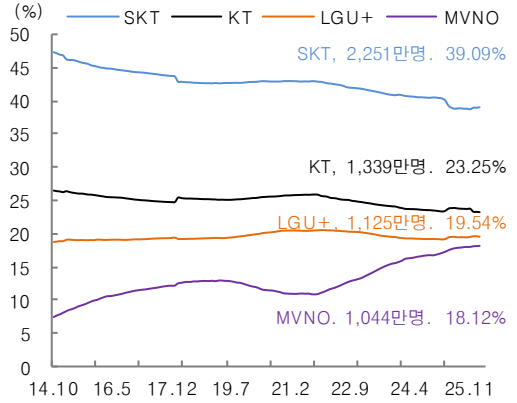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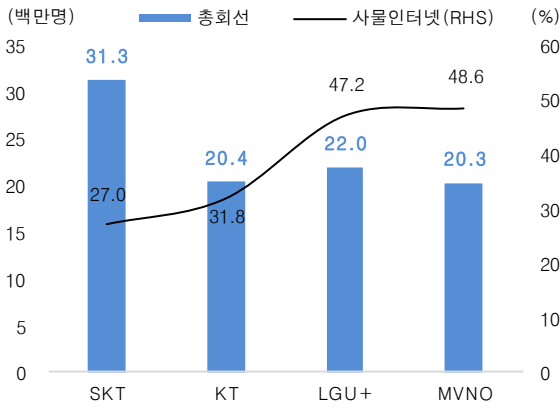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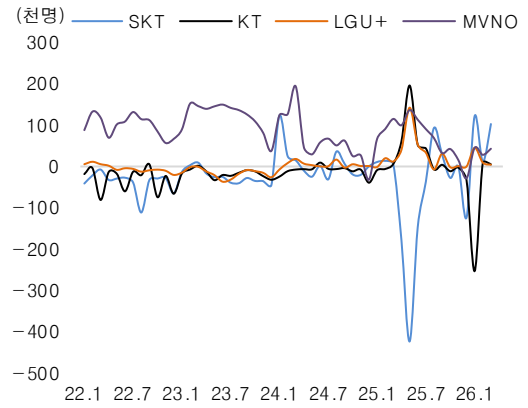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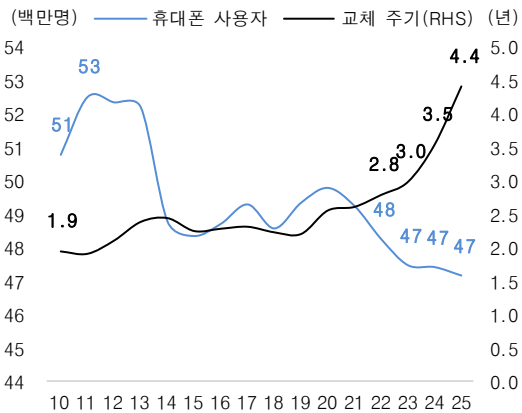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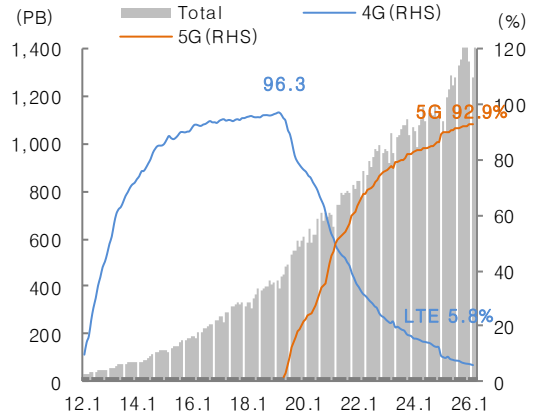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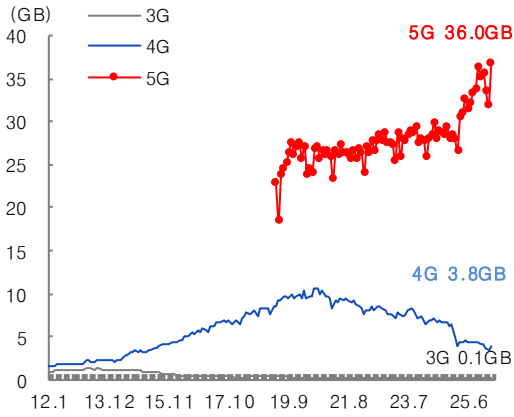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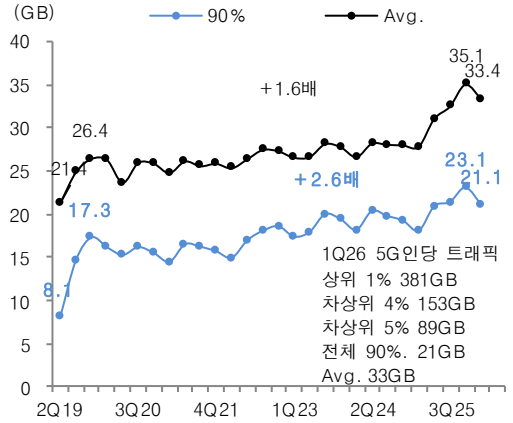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0GB(26.3월), +4.0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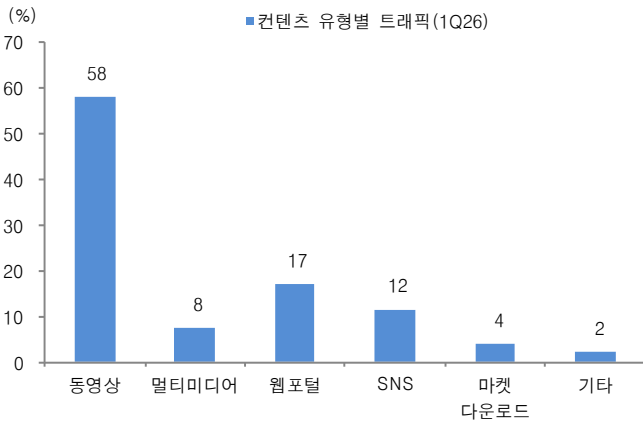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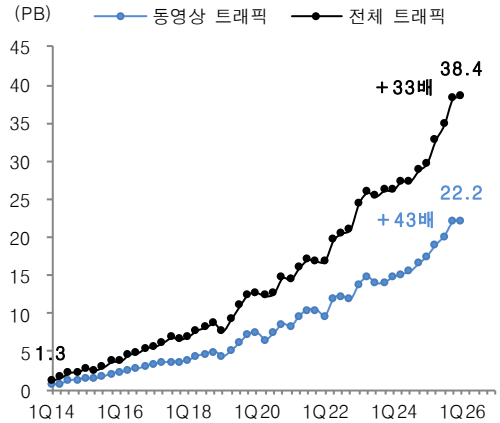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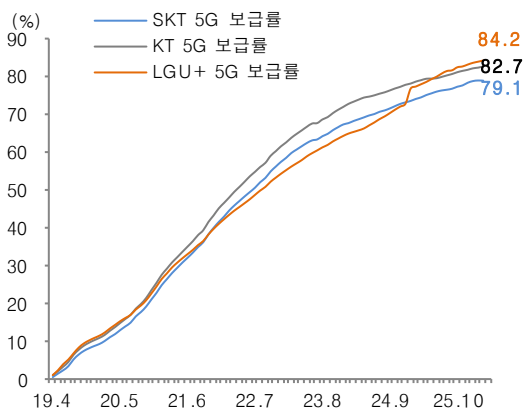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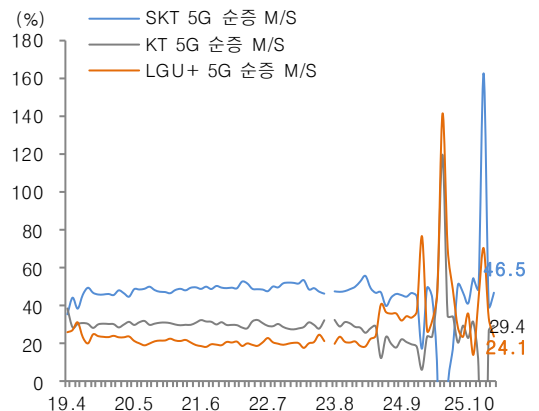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3%(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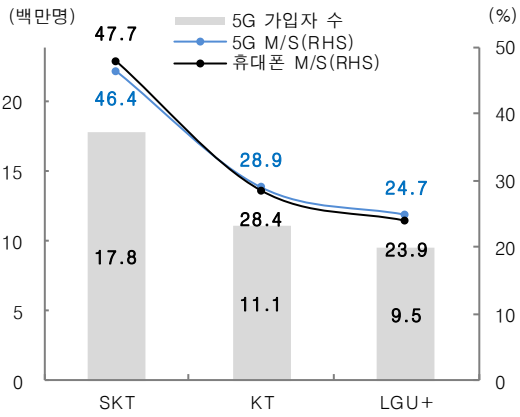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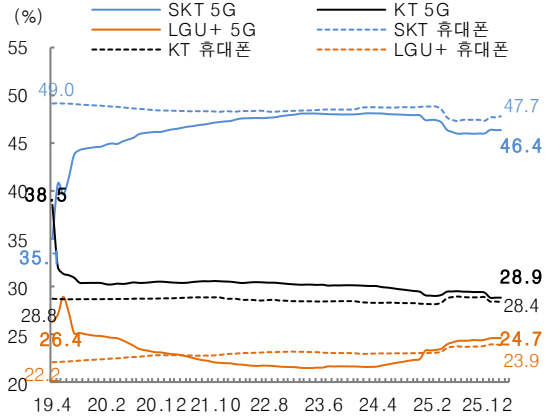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